

기타큐슈 은행 모지 지점

이 건물은 현재는 기타큐슈 은행의 모지 지점이지만, 원래는 요코하마 정금은행의 지점으로 1934년에 개업했습니다. 요코하마 정금은행은 외환과 대외 무역의 자금 조달 업무를 했습니다. 이후 이 건물은 많은 은행의 점포로 사용되었습니다.

지역의 다른 역사적 건축물에 비해 이 건물은 고전적인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이는 설계자이자 건축가인 사쿠라이 고타로(1870~1953)의 특징입니다. 그는 런던에서 건축을 배웠으며, 자신을 고전주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창문 위의 부조 꽃 장식, 문의 양옆에 배치된 필라스터(그리스·로마 시대의 기둥 같은 디자인 요소)에 고전적인 분위기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은 항구보다도 오히려 시가지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코하마 정금은행이 항구 주변의 여행자와 선박 회사보다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항구 주변뿐만 아니라 모지 전체에 번영의 물결이 퍼져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주민도 관광객도 항구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는 패션 부티크와 레스토랑, 오락 시설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모지에는 부가 집중되어 있어 일본은행을 포함한 많은 은행의 지점이 모지에 개설되었습니다.

요코하마 정금은행은 1946년에 폐쇄되었고, 이 건물은 야마구치 은행(본점은 해협을 사이에 둔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에 있음)이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야마구치 은행의 규슈 지역 내 점포를 인수하는 형태로 기타큐슈 은행이 설립되었습니다.